

광주 소매·유통업체 64% “中 온라인플랫폼 위협적”

광주상의, 경기전망지수 조사

올 2분기 ‘부진’…고물가 지속 탓
中 진출 확대 ‘유통시장 경쟁 심화’
“정부 경기부양책·규제 완화 시급”

경제불황 장기화로 소비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소매·유통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저가 상품을 내세워 국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협적’이라고 우려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81)보다 1p 하락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2/4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야외 소비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좀체 회복되지 못하면서 최근 4년간의 2/4분기 체감경기 중 유일하게 수치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다음 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애로 사항으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높은 소비자물가 지속(38.3%)’을 꼽았으며, ‘인건

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17.0%)’, ‘시장 경쟁 심화(14.9%)’, ‘고금리 지속(12.8%)’,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8.5%)’, ‘경기침체 등 기타(8.5%)’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은 모두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100→100)은 가전·가구 등 고가품 및 야외·레저용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체감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58→77)과 슈퍼마켓(72→73)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활동 증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대형마트(100→75)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온라인 유통채널 등과의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분기 매출 및 수익에 대해서도 백화점(100→100)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편의점(52→71), 슈퍼마켓(81→73)은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대형마트(100→75)는 전분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알리, 테무 등이 저가상품 및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국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들의 63.8%가 ‘위협적이다’고 답했으며,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70.2%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4%였다.

이처럼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국내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들의 68.1%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응방안 강구 중 및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4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내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업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등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유통업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응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제철 맞은 흑산도 홍어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1층 식품형 사장에서 봄 제철을 맞은 흑산도 홍어를 비롯해 국내산 홍어 등을 선보이는 ‘홍어 대축제’ 행사를 11일까지 진행한다. 흑산도수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코드를 받아 인증된 흑산도산 홍어와 국내산 생물 홍어를 만나볼 수 있다. 또 홍어와 함께하면 더욱 풍미가 좋은 막걸리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 막걸리인 해남 ‘해항막걸리’와 나주 ‘정고집옛날동동주’를 비롯 울산 ‘복순도가손막걸리’, 평창 ‘봉평메밀막걸리’ 등 전국 유명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 감사 이벤트

광주은행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미리 특정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 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면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해외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환율 우대 90%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우대 혜택은 지난해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미화 1달러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APP)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영문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고공행진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

광주 휘발유 값 평균 1650원대 2주일째 경유가격과 동반 상승

보합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지역 유가가 2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유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31~4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47.0원으로 전주(1639.5원) 대비 7.5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는 전주(1538.2원) 대비 2.0원 오른 1450.2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직전 주 대비 11.2원 상승한 1728.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81.8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15.0원으로 전

주 대비 7.4원 올랐으나 전국 평균 대비 31.9원 저렴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휘발유 판매가는 1628.41원으로 국내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직전 주(1622.18원) 대비 6.23원 올랐다. 전남 지역 휘발유 가격도 직전 주(1638.74원) 대비 4.42원 오른 1643.16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경유 값은 각 1519.31원, 1539.44원으로 전주와 큰 차이 없는 보합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 경유값을 살펴보면 광주 휘발유 판매가는 1650.96원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1624.40)보다 무려 26.18원 급등했으며 전남보다 3.58원 올랐다. 경유값도 지난달 31일(1517.69원)보다 11.39원 올랐으며 전남보다 1.36원 상승했다.

전남 지역 휘발유값은 1657.99원으로

전날보다 1.93원 올랐으며 일주일 전(1640.37원)과 비교해 17.62원 비싸졌다. 경유값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1545.61원을 기록했으며 일주일 전(1538.75원) 대비 6.86원 올랐다.

국내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OPEC+(비산유국 협의체) 감산 정책 유지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에 따라 덩달아 올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6개월째 지속된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하며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OPEC+(비산유국 협의체)가 현행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 생산 감산 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3.2달러 오른 배럴당 89.0달러를 기록했다.

박소영 기자

전남신보·카카오뱅크, 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카카오뱅크와 ‘2024 카카오뱅크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터를 비우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은행과 재단 방문 없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행에 앞서 전남신보는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전남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약속하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 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남신보에서 전액 보증한다. 특히 전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p 이자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은 2%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의 절반을 카카오뱅크가 지원해 고객 1인당 평균 25만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신청은 카카오뱅크 자체 은행 앱(APP) 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이나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앱(APP) 이용 시 보증서 발급과 대출실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지역중기청,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광주전남지방법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